



이스라엘은 인종 학살 멈춰라 팔레스타인 저항 정당하다

2.17 국제 행동의 날 대행진에 함께합시다!

1월 26일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 인종 학살 행위를 막을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인종 학살을 벌이고 있다고 볼 합당한 근거가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내려지기가 무섭게, 미국 등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강대국들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지원을 끊었습니다. 몇몇 UNRWA 직원이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에 가담했다는 이스라엘의 말만 믿고서 말입니다. 230만 명의 가자지구 주민들은 이제 아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방 강대국들은 인종 학살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인들을 집단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

사실, 이스라엘 정부 인사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인간 짐승”으로 일컫는 등 인종 학살 의도를 숨기지도 않아 왔습니다.

10월 7일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2만 7000명 이상이 이스라엘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

니다. 희생자의 75퍼센트는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은 난민촌, 대피소, 학교, 병원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에 의해 집단 처형된 것으로 보이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신이 유엔 학교 운동장에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인도적 재앙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33만 5000명에 달하는 5세 미만 아동이 심각한 영양실조와 굶주림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국제 아동보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서도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1월 30일에는 의료진과 환자로 위장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서안지구 제닌의 병원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강탈 국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을 이유로 반인륜적 범죄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원은 76년 동안 계속돼 온 이스라엘의 인종청소와 점령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그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 인들을 학살하고 내쫓아서 건국한 나라입니다. 그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 남은 팔레스타인인들의 땅과 집을 빼앗고, 그들을 내쫓고, 박해해 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런 식민 지배에 맞서 끈질기게 저항해 왔고, 이스라엘은 이를 탄압하는 것을 “정당방위”라고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도 공범

미국 정부는 말로는 팔레스타인인의 생명을 걱정한다면서도, 이스라엘을 철저히 지원해 왔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에 막대한 돈과 무기를 보내고,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서 휴전 촉구 결의안에 거듭 반대했습니다.

나아가 미국 정부는 직접 군사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이스라엘행 선박들을 공격하자, 미국은 예멘을 폭격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라크 내 표적을 폭격했습니다. 이는 중동에서 더 큰 전쟁의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연대 목소리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용기를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전례 없는 규모의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13 국제 행동의 날에는 45개국 121곳 도시에서 연대 시위와 행진이 열렸습니다.

한국에서도 10월 11일 이래 매주 재한 팔레스타인인들과 내외국인 수백 명이 집회와 행진을 해왔고, 서울뿐 아니라 부산, 인천, 수원, 울산 등에서도 연대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월 17일(토)은 ‘2.17 국제 행동의 날 대행진’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 중단을 요구하고,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함께 모읍시다.

2024.2.2

2.17 국제 행동의 날 대행진

2월 17일(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정문 앞 인도

(광화문역 4번 출구 인근, 서울 종로구 종로가 1-3)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 (예금주 최영준) 보내 주신 후원금은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개최를 위해 사용됩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재한 팔레스타인인·아랍인들과 39개 시민·사회 단체가 연명하고 함께합니다.

(2023.12.16. 현재)



웹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 010-7550-2131 | people.freepalestine@gmail.com | bit.ly/people-freepalestine